

בֵּית ספר (책의 집)

『그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한동일 씀, 인티



침묵이 고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고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불과 같아서
 말씀을 접한 사람의 마음은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접한 인간에게는 평화가 아니라
 수많은 갈등의 요소로 불이 붙습니다.
 말씀으로 인해 불이 붙는 것은 그 말씀이
 이전과는 다른 삶과 생활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의 공간에서
 오히려 침묵하지 않는 내면을 발견하는 것처럼
 말씀은 그렇게 우리 마음에 불을 지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불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예레미야 5:14)

제51권 33호 2025년 8월 17일(성령강림절 후 열 번째 주일)

제109회 총회주제 :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겔 37:14, 행 9:31)

안산교회는 1974년 4월 여천군 월내리에서 설립 후 안산동으로 이주하였으며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여수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앞선 세대를 섬기는 공동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 영성과 지성의 조화를 꿈꾸는 공동체,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동체”를 세워가기에 힘쓰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전남 여수시 안산길 172-10 59662
 교회 (061) 691-7315 Fax (061) 691-7320 목양실 (070) 4292-8377

† 안산가족 소식

은혜와 평화의 동산 **안산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며, 우리교회의 예배를 소개합니다.



- **주일 낮 예배:**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표'를 읽으며 예배드린 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실천합니다.
- **찬양예배:** 매일 첫 주일 오후에 모입니다.
- **수요기도회:** 매일성경 '그룹 큐티 나눔'을 교재로 활용합니다.
- **새벽기도회:** 매일성경 성서암기표를 활용하여 주 4회(화-금) 모입니다.
- **일상기도:** 다락방과 중보기도 제목을 활용하여 일상에서 기도합니다.

- 예배 ① 주일예배:** 오늘은 성령강림절 후 열 번째 주일입니다.
(공동기도문과 지난 주일 설교 요약문은 사무실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 섬김주일:** 낮 예배 후 남녀선교회 월례회로 모입니다.
- 예배당 보수공사 안내:** 가을에 진행할 예배당 지붕 보수공사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감사한 일이나 가정의 애경사 시 '오병이어 건축헌금'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약 2,000만 원)
- 중보기도 제목**
 - 코로나19 극복과 교훈(공존, 공생)을 잊지 않기를
 -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및 한반도의 평화와 빈부격차, 이념 및 세대 갈등 해결을 위하여
 - 한국교회의 회복과 사명 감당을 위해
 - 동역자들(방글라데시, 필리핀, 동백사랑교회, 여은교회)을 위하여
 - 노년의 평화와 고난 당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 신앙실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살고 싶고 따르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나요? 그 구절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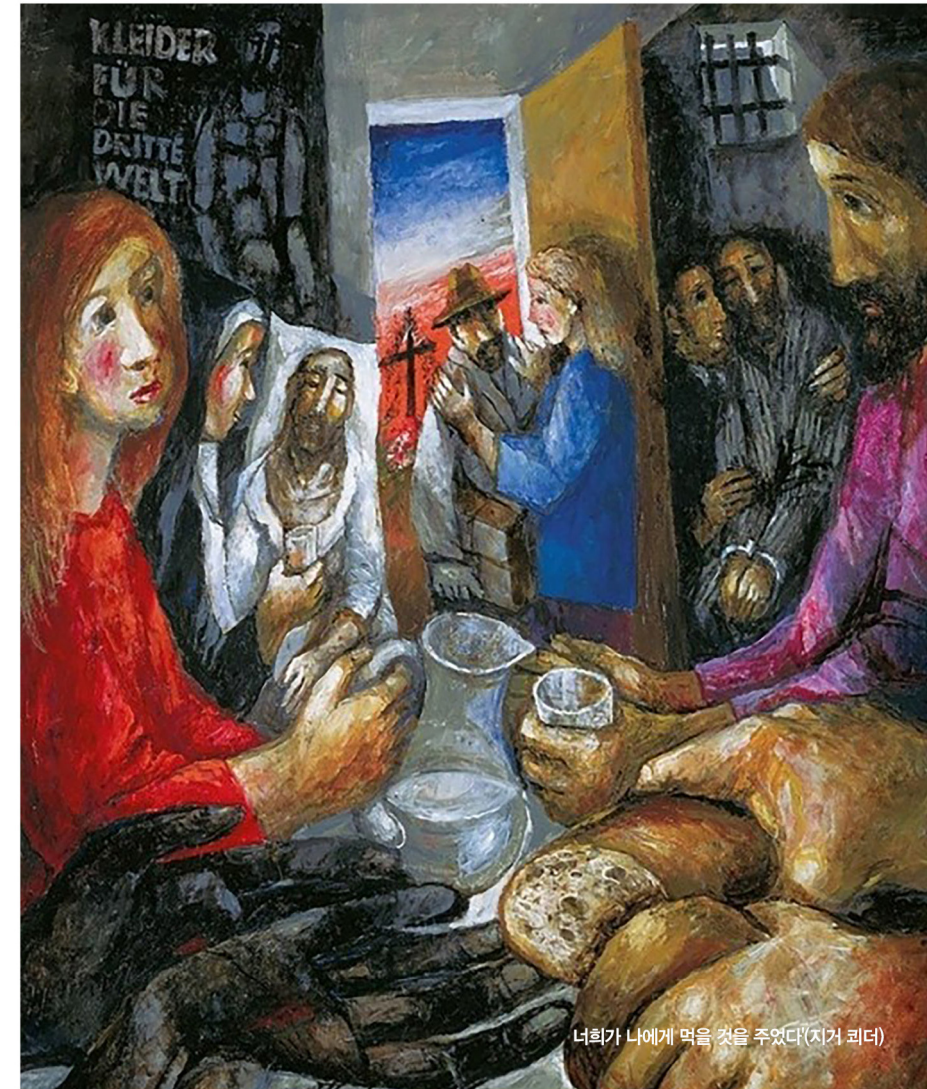
† 예배 및 자치회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선교회	연령
주일낮예배	오전 11시	본 당	아브라함	남 성 교 우
수요기도회	오후 7시	소 예배실	에 스 터	61-70세 여성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소 예배실	드 보 라	51-60세 여성
아동부예배	오전 9시	소 예배실	마 리 아	41-50세 여성
청소년부예배	오전 9시	청소년부실	한 나	40세까지 여성

YouTube 채널: 여수안산교회 | 온라인 헌금계좌: 신협 061-691-7315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평화의 동산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교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지거 14:13)

주일예배 (성령강림절 후 열 번째 주일)

주일 오전 11시	인도 : 송 혁 목사
경배와 찬양	함 께
* 입례송	주 찬양
* 예배의 부름	요한계시록 4.8, 11
* 송영과 기원	반주, 인도자
* 영광송	14장(3절 후, 간주)
함께 드리는 기도	함 께
참회의 침묵기도	함 께
위로와 용서의 말씀	인 도 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성시교독	시편 82편(성서일과표를 보며)
감사찬송	359장(2절 후, 간주)
기도	장세중 장로
* 성경봉독	누가복음 12.49-51(신약 116쪽)
찬양	내 맘에 낙심되며
말씀선포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결단의 찬송과 기도	194장(3절 후, 간주)
봉헌	함 께
성도의 교제	함 께
* 교제의 찬양	382장(1절)
* 축도	송 혁 목사

* 표는 일어서서 합니다. (헌금은 예배 전,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다음 주기도 - 김영준 장로

- * 8월 안내위원 : 신대심, 손양선, 박선례, 최형미
- * 8월 헌금위원 : 김인수
- * 8월 주방봉사 : 9, 6구역

생명의 말씀



“나는 이 땅에 불을 지르러 왔다. 바로 지금 이 땅이 활활 불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나는 모든 것을 바꾸고 모든 것을 재대로 뒤집으려고 왔다. 이 일을 이루기를 내가 얼마나 기다렸던가! 너희는 내가 모든 것을 순탄하고 무난하게 만들려고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분열과 대립을 일으키러 왔다! (누가복음 12.49-51/메시지성서)”

섬김주일

낮예배 후

남녀신교회 월례회 정한 장소

수요기도회

오후 7시

인도 : 이기도 목사

찬양	함 께
기도	강은진 권사
성경봉독	스가랴 9.9-17(구약 1120쪽)
말씀선포와 기도	성전 재건 이후
축도	이기도 목사

다음 주기도 - 오현아 집사

일상기도 (매일성경)

날짜(요일)	목상 본문	21일(목)	스가랴 14.1-11
18일(월)	스가랴 11.1-17	22일(금)	스가랴 14.12-21
19일(화)	스가랴 12.1-14	23일(토)	시편 120.1-121.8
20일(수)	스가랴 13.1-9	24일(주일)	시편 122.1-123.4

*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와 여수지역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

지난주일 말씀

“보라! 그것은 네 것이 아니다.”

(창세기 15.1-6)



[성서일과표/창세기 15.1-6, 시편 33.12-22, 히브리서 11.1-3, 8-16, 누가복음 12.32-40]

성서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사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말씀임 없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보통 그것을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었던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새로운 인간의 모델이며, 새로운 신앙의 본보기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신앙이란 ‘책임’을 다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행을 떠난 아브람은, 조금씩 조금씩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빛으셨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은 아브람이 책임적 존재가 되어가는 결정적 사건을 보도합니다. 낯선 타향에서 이방인의 삶을 살아야 했던 아브람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을 겁니다. 무엇보다 그를 힘들게 한 것은 자식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내가 받을 상급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람은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 자가 너를 상속하지 못할 것이다. 오직 네 몸에서 나오는 자가 너를 상속할 것이다.” 히브리 성서는 “보라”는 요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보라!”는 부름은 구약성서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이나 삶의 방향을 바꿀 것을 요청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말 성서와 대부분의 영어 성서는 이 표현을 생략 하였습니다. 히브리 세계관을 잘 모르기 때문이지요.

이번 주 저의 씨름은 “보라”는 명령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름에 따라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되게 하는 결정적 순간이 되리라는 사실을 직감했기 때문이지요. 저는 ‘오직 네 몸에서 나오는 자가 너를 상속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눈이 환히 열리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람에게 단지 후손을 약속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진정한 나를 이루는가를 사람에게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진 재산, 지식, 권력 그리고 타인의 인정을 자선이라고 착각합니다. “오직 네 몸에서 나오는 자가 너를 상속할 것”이라는 말을 넓게 보면, 네 몸에서 나오는 것만이 네 자신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NIV를 이렇게 의역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너의 것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오직 네 살과 피로 이룬 것만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해도 여러분의 땀과 눈물, 살과 피로 얻은 것만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정직한 땀과 노동으로 얻은 재산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겁니다. 도리어 영혼을 상하게 하겠지요. 많은 지식과 엄청난 권력을 가졌다 해도 여러분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통해 얻은 것만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누군가가 평생 살과 피로 얻은 지식을 도용하거나, 부화뇌동이나 아부로 얻은 권력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권력자의 말로가 그것을 증명하지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 설교를 위한 자료들이 넘쳐납니다. 요즘 화두인 인공지능이나 클리닉 한 번으로 쏟아져나오는 자료들을 활용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하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제 살과 피로 낳은 자식이 아닙니다. 아무리 멋진 문장이라 해도 체계는 남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사서 고생합니다. 본문을 정하면 약 스무 가지의 번역 성서와 사전을 참고하여 풀이한 후 기초 자료로 사용하지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기도문과 찬송가를 그대로 사용해도 좋지만, 저의 언어로 기도문을 다시 쓰고 영어 찬송 가사를 다시 번역하거나 한 절을 새로 덧붙이기도 합니다. 금요일에 주보에 실은 설교 요약본은 토요일 오전 내내 다시 책을 찾아가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다음에 후에야 여러분께 보냅니다. 제가 쉬운 길을 마다하는 이유는 살과 피로 이루지 않은 것은 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생명과 기쁨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람을 데리고 나가 하늘을 가리키며, “너의 자손이 하늘의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가 땀과 눈물로 진지하고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 때 상상을 초월하는 열매를 얻게 되리라는 약속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제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절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부족하다거나 환경 탓하는 대신, 책임적 존재로서 살과 피로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의 엄청난 창조 능력을 맛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저의 신앙고백이지요.

무엇보다 진리, 즉 궁극적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더욱 살과 피, 땀과 눈물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 증거입니다. 그는 인공지능이나 다른 도구 아닌 자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요! 오늘 선곡한 찬송가 331장은 영국의 찬송 시인 프랜시스 리들리 허버드의 작품입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라는 번역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무언가를 하겠다는 책임 전가로 보였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이 찬송을 저와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후렴 가사를 다시 번역해 보았습니다. “멈출 수 없게 참을 수 없게 만왕의 왕께 드리는 찬송을 멈출 수 없게 참을 수 없게 자유와 기쁨의 새 노래를!” 이 고백이 살과 피, 땀과 눈물을 다해 진지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찬송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살렘.